

## 6 코로나19 특별기획⑦ 전염병



큰 전염병이 지나고 나면 언제나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바뀌었던 것처럼 코로나19 또한 우리의 생활을 크게 바꿀 것이다.

(사진=언스플래쉬)

##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차 응 석

한의학과 교수

을 보는 공간을 집 안에 두어야 한다는 의식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 사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 전 세계로 퍼진 콜레라

새로운 사회는 새로운 질서와 습관을 요구합니다. 이 습관과 질서는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하는 무언가의 동력이 생겼을 때만 가능한 거죠.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 것이며 어떤 질서와 습관을 요구하게 될까요?

세계적인 팬데믹이 바꾸어놓은 인류의 역사. 그로 인해서 새롭게 터득한 습관과 질서는 무수히 많습니다. 어쩌면 인류의 문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터득한 습관과 질서의 종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전근대에서 근대사회로 진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전염병 콜레라를 소개합니다. 콜레라는 1800년대 사람들이 모여사는 곳을 찾았더니 농경사회가 아닌 고도화된 산업사회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제대로 가르쳐주었습니다.

1800년대 산업사회로 진입하고 노동집약산업의 성장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대도시의 강 주변에 모여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였지만 상하수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도시에 모여 사는 사람들은 주로 빈민들이어서 오물처리를 효과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서구사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서울, 상해, 북경, 동경 등 대도시의 건물은 웅장하게 지었지만, 대소변

콜레라균은 원래 인도의 갠지스 강 하류 삼각주의 소금물에서 흘러내리며 물에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영국에 나타나면서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이 500여 명이 죽으면서 시작된 콜레라는 2년 후에 갠지스강 상류까지 올라와 순례자 2만 명을 물살시키더니 1817년 즈음에는 터키와 싱가폴, 일본에 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의 네트워크를 따라 전 세계로 퍼져 나가기 시작한 한데 1820년에 인도에서의 콜레라는 흘연히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빈민들이어서 오물처리를 효과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서구사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서울, 상해, 북경, 동경 등 대도시의

마비시킵니다. 그러면 숙주는 체내의 수분을 30%가량 폭포수처럼 쏟아내게 됩니다. '이제 물만큼 캐운다'나 좀 보내주라'는 신호입니다. 이때 사람이 느끼는 고통과 공포는 호랑이가 물어뜯는 정도로 비견한다고 했을 정도니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고, 콜레라는 그렇게 하나의 생명체를 끝장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2-3일입니다.

## 외연반은 존 스노의 주장

콜레라에 관해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1854년 여름 영국 런던의 브로드가에 있는 우물의 손잡이를 떼어낸 사건입니다. 존 스노가 주류 사회의 깊은 멸시와 비아냥을 이겨내고 콜레라가 공기 중의 독기인 Miasma가 아닌 물로 인해서 전염된다라는 것을 거의 사정하다시피 알게 되었습니다. 루이 파스퇴르가 세균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실험을 한 것이 1862년이니까 존 스노가 미친놈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역설하고 다닌 이때만 해도 아직 질병의 원인은 무조건 독기

(Miasma)여야 했습니다.

영국은 이미 산업사회로 진입했고 대도시들은 매연과 악취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제 물만큼 캐운다'나 좀 보내주라'는 신호입니다.

1854년에 런던에서만 만 명의 사망자를 내고 어찌어찌 감염 고리가 끊긴 채로 콜레라는 종식되었습니다. 그들 중 독기로 결론났습니다. 그들 중 독기로 결론났습니다. 그들 중 독기로 결론났습니다.

런던의 유명한 마취의사였으며 남들과 다른 생각을 했던 존 스노는 일단 매연과 악취의 최전선에

있는 청소부들이 콜레라의 감염과는 무관하고, 일정한 곳에서 물을 공급받는 템스강 남쪽의 사람들에게 감염율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서 집요하게 콜레라의 원인을 파고들었습니다.

존 스노에게는 그가 즐기자 주정하던 '공기는 죄가 없다'는 말을 다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으나, 그는 그해 대악취가 나기 직전 뇌졸중으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화병이었을 것입니다. 런던에서 손꼽히는 마취 전문 의사였는데, 콜레라 사건으로

그리고 장점막 안으로 독소를 뿐 아니라 내부에 퍼트려 소시오패스로 성공했지만, 콜레라는 수인성 전염병으로 인정되지는 못했습니다.

다. "돈도 많은 의사 놈이 저 손잡

이를 가져다가 뭐 하려고 그러지"

하는 비아냥은 마치 본 것처럼 눈에 선합니다.

1854년에 런던에서만 만 명의 사망자를 내고 어찌어찌 감염 고리가 끊긴 채로 콜레라는 종식되었습니다. 그들 중 독기로 결론났습니다. 그들 중 독기로 결론났습니다.

런던의 유명한 마취의사였으며 남들과 다른 생각을 했던 존 스노는 일단 매연과 악취의 최전선에

있는 청소부들이 콜레라의 감염과는 무관하고, 일정한 곳에서 물을 공급받는 템스강 남쪽의 사람들에게 감염율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서 집요하게 콜레라의 원인을 파고들었습니다.

존 스노에게는 그가 즐기자 주정하던 '공기는 죄가 없다'는 말을 다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으나, 그는 그해 대악취가 나기 직전 뇌졸중으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화병이었을 것입니다. 런던에서 손꼽히는 마취 전문 의사였는데, 콜레라 사건으로

수는 없었을 겁니다.

잠잠했던 콜레라는 1866년 런던에 나타나서 4000여 명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미 1858년의

대악취를 경험하고 어쩌면 스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의심을 하던 참인데, 1854년에 스노와 같

이 일을 했던 월리엄파가 나서서

콜레라의 발생을 주제로 런던의 하수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남아있던 곳에서 콜레라가 퍼져나갔고, 그 하수관의 영향을 받

은 사람들은 콜레라에 감염되었습니다.

현대의 도시설계는 상하수도를

엄격하게 분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돈이 많이 드는 일이라도 상하수도를 포기하면서 도시를 건설하는 바보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

니다. 우리는 콜레라 덕분에 도시 설계를 좀 더 정밀하게 할 수 있었고 콜레라뿐 아니라 모든 수인성

전염병들과의 거리두기를 체계적

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생물이 인간의 삶을 바꾸어놓은 하나님의 사례입니다.

콜레라뿐이겠습니까. 감기 바이러스 덕분에 환절기 때 건강관리하는데 늘 신경 쓰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 디스토마 균 때문에 생식을 하는 습관을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은 소소한 것 등을 포함해서 음식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낭비하지 않는 것, 몸을 씻고 청소를 하는 등 우리들의 삶 전제는 모두 인간이 미생물과 공존하면서 만든 습관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으나 없는 것처럼 하고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알아가야 하고 터득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뭘 바꾸라고 말하는지는 아직 지켜봐야겠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틀림없이 뭔가는 바뀌어있을 것입니다.

## 코로나19 특별기획을 마치며

이태영 기자 ysmhip6@khu.ac.kr

코로나19가 우리 모두의 삶을 뒤흔든 지 1년하고도 반이 지나간다. 사회는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에 직면했다. 우리신문은 코로나19가 불러온 변화에 주목해 지난 3월부터 이번 호까지 총 7회에 걸쳐 <코로나19 특별기획>을 연재했다.

우리가 <특별기획>을 준비한 것은 코로나19가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미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온 사회 변화의 흐름이 코로나19와 맞물리면서 변화는 더 폭발적이었고 또 바이러스 종식 이후에도 그 속도와 폭은 오히려 더 격렬해질 것이기에 남겨진 과제를 탐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연재순서

- ① 코로나19 멘탈데믹
- ② 온택트 시대 교육
- ③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교육 방향
- ④ 코로나19와 백신 접종
- ⑤ 기후 변화
- ⑥ 코로나19와 관광산업
- ⑦ 콜레라로 본 코로나19의 내일

<코로나19 특별기획>은 교육, 정책, 관광, 의학,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류가 기존의 방식을 뒤바꾸며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식과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 등을 제시했다. 또 독자들에게 해당 영역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생각의 지점을 제공할 수 있었기를 기대했다.

아쉬움은 남는다.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에게 일상이었던 공간은 좀 더 이질적이면서 거리가 있는 대상으로 변했다. 캠퍼스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연재에서 그 '공간'을 살피지 못한 것은 숙제로 남았다. 우리신문은 뜨거운 여름 준비 기간을 통해 2학기 코로나 시대와 그 이후 캠퍼스 공간에 대해 생성된 새로운 시선을 준비하여 한다. 3~4학년과 1~2학년이 느끼는 캠퍼스는 어떻게 다를까. 흥미있는 주제가 아닐 수 없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뭘 바꾸라고 말하는지는 아직 지켜봐야겠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틀림없이 뭔가는 바뀌어있을 것입니다.